“1987년 당시 대학생… 내 캐릭터 나도 미웠다”

스타인터뷰 영화 ‘1987’ 김 윤 식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강력한 악을 연기하려고 작정했죠. 제가 맡은 캐릭터가 끝까지 악하고 강해야 작품의 완성도와 몰입도가 높아질거라고 생각했죠. 누군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 모든 것으로 희생해서 표현하고 싶었죠.”

‘타짜’의 아귀, ‘추격자 ’의 형사 그리고 지난해 ‘남한산성’ 속 김상헌까지. 다수의 작품에서 굵직한 연기를 선보여온 배우 김윤석이 영화 ‘1987’(감독 장준환)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하나였다. ‘잘하자’라는 것. 그동안 영화를 통해 보여줬던 어떤 역할보다 강한 인상을 관객에게 남겨 결말에 다다랐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자는 것이 목표였다.

지난 27일 개봉한 영화 ‘1987’은 스물두살 대학생이 경찰 조사 중 사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경찰과 권력 수뇌부에 맞서 각자의 자리에서 신념을 건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행동이 광장의 함성으로 확산되기까지를 스크린에 펼쳐놓는다.

김윤석은 고문치사사건의 은폐를 지시하는 대공수사처 박처장으로 분해 완벽한 연기로 관객을 몰입시킨다.

언론시사회 당시 완성된 결과물을 보면서 눈물을 흠치던 김윤석. 그는 “실제로 1987년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다. 노력만큼의 값진 성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고 입을 열었다.

영화 ‘1987’ 스틸컷

고문치사 은폐 지시 박처장 役
제안받고 열과 성 다하겠다 다짐
하정우·김태리 등 배우 대거출연
‘짧은 역할’에도 충실해 감동받아

“그 해 6월 부산에 있었죠. 그 당시에는 전국에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였어요. 모이면 집회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험도 전부 레포트로 대체하고 그랬었죠. 막말로 그 당시 대학생 중에 대모 한 번 안해본 사람 없을 걸요? ‘운동권’이라는 미명 아래 모인 사람들만 대모한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1987년 대한민국은 ‘안개낀 도시’였다고…”

김윤석이 연기한 박처장은 투박하면서도 서늘한 평안도 사투리를 사용하고, 매서운 눈빛, 권위와 신념이 읽히는 강한 인상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본인이 맡은 캐릭터이지만, 진심으로 미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시나리오 초고가 나왔을 때 작품 제안을 받았고, 온몸이 소진될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촬영에 돌입했다”며 “여느 다큐멘터리보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영화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만들거라면 정말 ‘좋다’라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자고 감독님과 이야기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물을 봤을 때 감독님이 얼마나 정성을 쏟았고, 고생하셨는지 알겠더라.”고 말했다.

영화 ‘1987’에는 김윤석, 하정우, 유해진, 김태리 외에도 이희준, 설경구, 강동원, 고창석, 오달수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김윤석은 “더 많은 배우가 ‘1987’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었다. 정말 짧은 순간 나오는데도 맡은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다. 아마 내가 박처장을 연기하지 않았더라도, 작은 역할으로라도 참여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정우와는 ‘추격자’ ‘황해’에 이어 작품까지 함께 연기 호흡을 맞췄다. 업계에서 ‘김윤석-하정우의 조합은 항상 옳다’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

“배역의 분량으로 따지자면, 하정우 씨 분량 역시 많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도 꼭 같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정우 씨가 저와 쌍벽을 이루는 검사 역할을 맡아서 좋았고, 객관적으로 그 시대(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해줘서 고마웠어요.”

김윤석은 작품이 담고 있는 내용때문이었는지 촬영하기 힘들었던 장면도 있었다고 넌지시 입을 열었다. 전기고문의 자에 앉아있는 유해진을 바라보며 대사치는 장면에서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아파 울컥했다고. 그럼에도 박처장을 인상적이게 연기해야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좋은 영화를 잘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박종철 열사 30주기가 있었어요. 그때 직접 감독님과 부산에 찾아가 박종철 씨 누님을 뵙고 영화 제작에 대해 말했더니, ‘잘 만들어달라’고 하셨어요. 완성도가 떨어지는 영화가 나오면 얼굴을 못 들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역할에 몰입해야했죠.”

그 어떤 배우들보다 ‘완벽주의’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배우 김윤석. 항상 최선을 다해 최고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것일 터. 앞으로 그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배우 김윤식 /CJ엔터테인먼트

‘알까기’ 같지만 두뇌싸움 필요한 ‘빙판 위의 체스’

알고보는 평창동계올림픽 ③ 컬링

20kg 스톤, 버튼에 가까운팀 승리
스위핑으로 진행 방향·속도 조절

컬링이 국내에서 주목 받은 것은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때다. 스톤을 투구하고 브룸으로 바닥을 닦아내는 다소 생소한 모양새는 언뜻 ‘알까기’ 같지만 실제론 치열한 두뇌싸움이 필요해 ‘빙판 위의 체스’로 불린다.

컬링은 빙판 위에 그려진 표적판(하우스) 중앙(버튼)에 약 20kg 무게의 돌(스톤)을 던지고, 양 팀의 스톤 중 버튼에 더 가까운 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경기다.

스톤을 투구한 뒤에는 브룸으로 얼음 바닥을 닦아내며(스위핑) 스톤의 진행 방향과 속도를 조절한다. 선수들은 스위핑 동작을 하면서 5~10km 이상 거리를 이동하는데, 체중을 다 실어야 하기 때문에 팔과 등의 근력이 중요하다.

컬링 경기 시간과 환경만 생각해도 체력 소모는 상당하다.

컬링은 표면 온도 -4℃인 얼음 위에서 진행되는데, 경기를 한 번 치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다. 선수들은 추운 환경에서 팔, 등뿐만 아니라 평소 쓰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며 장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심리전도 상당하다. 경기 과정에서 상대 팀 스톤을 막거나 쳐내기 때문에 작전과 심리전은 필수다.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스톤을 던져야만 한다.

따라서 팀간 단합과 소통도 중요하다. 컬링에서는 팀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는 모습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서로 생각을 확인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같은 소통이 경기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수들은 마이크를 차고 경기에 임한다. 선수들의 대화는 방송 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는 남·여 일반 컬링(4인조) 기준으로 10엔드(End)를 치르고, 믹스더블(혼성 2인조)은 8엔드를 치러야 끝난다.

각 팀은 한 엔드에 총 8개(믹스더블은 팀당 총 6개)의 스톤을 던지며, 양 팀은 번갈아가면서 투구한다. 한 팀에서는 보통 리드, 세컨드, 서드, 스킵(주장) 순서로 선수당 1개씩 두 번 던지면 한 엔드가 끝난다.

동계올림픽에서는 하루에 경기를 두 번 소화해야 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컬링 일정에 따르면 대부분 오전·오후 각 한 경기씩 치른다.

스위핑은 경기 시작 전 빙판에 뿌려져 작게 얼어붙은 얼음 입자(페블)를 닦아내 스톤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작업이다. 페블을 얼마나 많이 닦느냐에 따라 스톤의 활주 거리, 속도, 휘어짐이 결정된다.

이 얼음 상태를 경기 시간 내내 똑같이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얼음 기술자 사이에서 컬링은 가장 까다로운 종목으로 꼽힌다.

한국 컬링이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것은 2014년 소치올림픽이 처음이었다. 경기도청 여자컬링팀은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 첫 올림픽에서 3승 6패를 기록, 10개 팀 가운데 8위에 올랐다.

이번 평창올림픽에는 남·여, 믹스더블 전 종목에 출전한다. 국가대표팀은 모두 경북체육회 소속 선수들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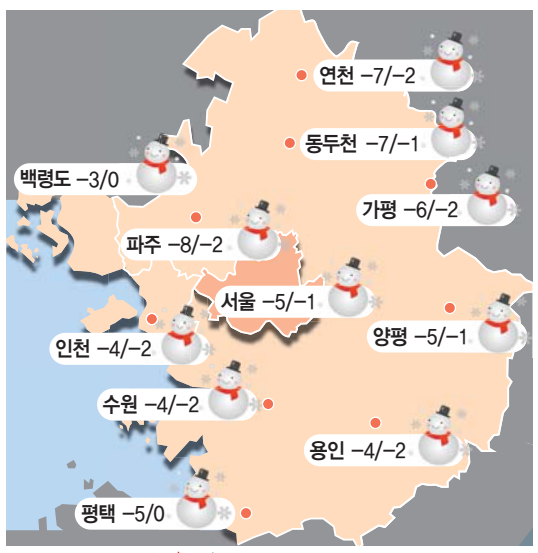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47 | 해짐 / 17:31

1월 9일 음력 : 11월 23일

수도권 날씨 -5~-1℃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이번 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장웅 북한 IOC 위원** 간 협상의 핵심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할 북한 선수단의 규모다. 역대 올림픽에 출전한 북한 선수단 규모를 감안하면 평창에 올 선수단은 1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사진)이 지난 6일 인천 전자랜드와 경기에서 불거진 판정시비와 관련한 심판설명회를 KBL에 요청했다.

▲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임대기 신임 구단주** 겸 대표이사가 8일 취임식에서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구단의 대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18시즌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개 대회에 총상금 약 207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새해 첫 대회는 3월 9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리는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이다.

▲ 은퇴한 육상 단거리 황제 **우사인 볼트**(32·자메이카)가 오는 3월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 구단 입단테스트를 받는다.

▲ 2017시즌 KBO리그 통합 우승팀 **KIA 타이거즈**가 2018시즌을 대비해 내달 1일부터 3월 8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에 돌입,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선다.

▲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 리그) 대전 시티즌은 베테랑 수비수 **백종환**과 미드필더 **박수창**, **고민성**을 영입했다.